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16

안드로메다 성운

제 1 장 천지만물의 창조

천지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생겨라.”

말씀대로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은 드러나거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고 하시
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종류대로 지으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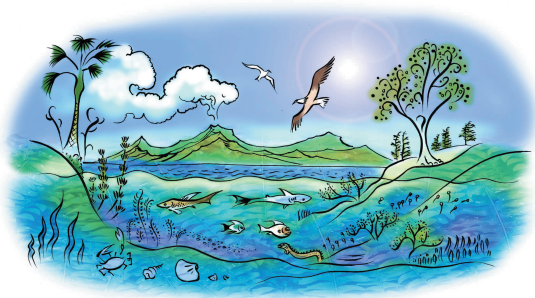
“땅은 푸른 움을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움을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
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
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
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
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
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흘날이 지



났다.

종(種)의 기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날이 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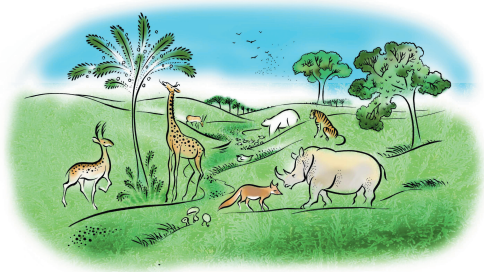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짐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짐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첫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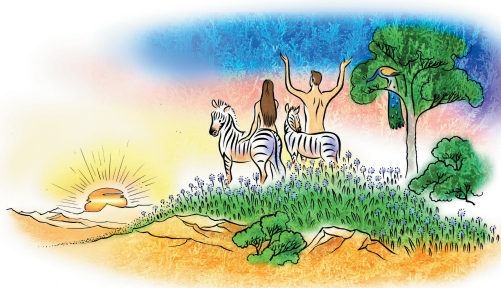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 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풀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 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 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 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 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 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에덴동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¹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¹히브리어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사용하신 이름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 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사람들의 불순종

뱀²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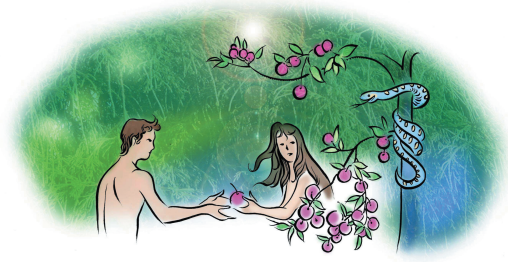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거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² 성경 전체에서, 「악마」 또는 「사탄」은 종종 「뱀」으로 불렸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죄의 저주와 죽음

그 남자³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³히브리어로 「아담」이며, 땅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의 「adamah」와 동일한 소리

“너는 어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피어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⁴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라는 뜻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남알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⁴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3:19



엔게다 언덕 (이스라엘)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창세기 6:13